

호남, 나프타 대체 Butane 구매

나프타 가격폭등은 심리요인 ... 부탄은 난방용 수요감소로 안정

ADNOC(Abu Dhabi National Oil)의 나프타(Naphtha) 공급감축 영향으로 1월 중순 톤당 380달러까지 상승했던 나프타가 1월16일에는 31달러 하락해 가격조정에 들어간 것으로 분석된다.

1월9일 ADNOC의 Cargo 지연소식으로 C&F Japan 톤당 380달러로 60달러 폭등했던 나프타는 “심리적 요인”이었다는 분석에 따라 가격이 일부 조정됐다.

1월16일 나프타 가격은 심리적인 영향으로 분석되는 30달러를 조정해 톤당 349달러로 떨어졌다.

나프타 가격상승으로 국내 7대 NCC(Naphtha Cracking Center)의 하나인 호남석유화학이 2월 나프타 구매에서 Feed를 Butane으로 조정해 2월 인도 조건으로 Butane 4만5000톤을 계약했다.

호남석유화학은 2003년에도 일시적으로 Butane을 통해 NCC를 가동한 바 있는데 NCC는 나프타 외에 Gas Oil 및 Butane으로 가동이 가능하다.

나프타는 1-6월 계절적으로 난방용 수요가 줄어들고 3-4월에는 국내 NCC 2곳의 정기보수가 예정돼 있어 수요가 감소함으로써 수급에 따른 가격하락이 예상된다.

또 2003년 미국-이라크 전쟁 발발 직전부터 불안정했던 원유가격이 2004년 하반기에는 안정될 것으로 보여 나프타 가격도 하반기부터 안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동민 조사연구원>

<Chemical Journal 2004/01/29>